



하나가 아니라서 하나인 것들 ©황예지

yin ming guang guo hong kong
《願榮光歸香港》

«Glory be to thee, Hong Kong»

曲 Thomas dgx yhi 詞 T. 畢達學 改編 T, BP, CLK.

he yi ze tu di lei zai liu
何以 這土地 淚再流

In angst, tears are shed o'er this Land

he yi ling jing ren yi fan han
何以 令眾人 亦憤恨

With rage, fears are crushed, in arms we stand

angou nan juai mai chen nao hai sheng hong tou
昂首 拒默沉 吶喊聲 響透

We rise, undefiled, our voice shall never die

pan zi you guo yu ze lei
盼自由 歸於 這裡

As we yearn, our freedom nights

he yi ze kong wu mo bu zou
何以 這恐懼 抹不走

With eyes blinded, long it comes the night

he yi wei xin nian cong mei tui hou
何以 為信念 從沒退後

In faith, banners high, we pledge to fight

he xie xue zai liu dan yun jin sheng hong tou
何解 血在流 但邁進聲 響透

Our flesh, sacrificed, our blood shall write this song

gān zì yóu guāng huī xiāng gǎng
建自由 光輝 香港
Free this Land, "Stand with Hong Kong!"

zài wǎn xīng zhǔ luò wǎng wǎng wǎn yè
在晚星 墜落 徬徨午夜
Stars will fall, and darkness fills the air

mí wù zhī lǐ zuì yuǎn chù chuī lái hào jiǎo shēng
迷霧裡 最遠處吹來 號角聲
Storms will break, bedazzled by our gallant fares!

chāi zì yóu lái qí jí zhè zhī lǐ lái quán lì kàng duì
捍自由 來齊集這裡 來全力抗對
We shall strike This perilous night Determined to fight

yǒng qì zhì huì yě yǒng bù jiǎn
勇氣 智慧 也永不減
With hope, with song, with dignity!

lí míng lái dào yào guāng fù zhè xiāng gǎng
黎明來到 要光復 這香港
Glory enshrined, break our chains! Hold our lines!

tóng xíng ér nǚ wéi zhèng yì shí dài gē mìng
同行兒女 為正義 時代革命
Freedom shall rise! Revolution of our Time!

qǐ sù mǐn zhǔ yǔ zì yóu wàn shì dōu bù xiǎo
祈求民主 與自由 萬世都 不朽
Liberty thrives, rights divine, in our unending strides

wǒ yuàn chéng guāng guī xiāng gǎng
我願 榮光 歸香港
Glory be to thee, Hong Kong!

*
<홍콩에게 영광을>은 '토머스 dgx yhl'이라는 필명의 작곡가가 만들어 익명 사이트 '초이쏘이토이(LIHKG)'에 올린 행진곡풍 노래다.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리며 홍콩 항쟁의 상징이 되었고, 독일어, 영어, 일본어, 카탈루냐어 등 여러 언어로 번안되었다.

홍콩과 중국인들의 희망을 들여다보다


글: 제니 첸 (Jenny Chan)
홍콩이공대학교 교수

번역: 박예하 (Park Yeha)

노동운동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를 비판해왔다. 이제 홍콩의 젊은 학생들 또한, 단호한 거절은 아닐지라도, 중국의 지배와 군림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홍콩인들이 본토에 끌려가 재판받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홍콩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행정장관을 맡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유와 정의를 지킬 수 있을까? 2019년 11월 17일부터 29일 사이, 홍콩이공대학교와 그 인근에서 총 1,377명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었고 그중 318명이 18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강렬한 분노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이 1997년부터 본토의 일국양제 체제 하에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콩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사회적 정체성 면에 있어 대부분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여긴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인권을 지키는 것은 홍콩의 문화적 기억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정부 시위의 물결 한 가운데서 맞은 2019년 10월 1일 국경일은 (SNS 위챗 블로그에 따르면) 홍콩 학생들보다는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들의 축제로 보였다. 중국 본토의 지도부가 홍콩 학교들에서 민족교화와 사회학을 강화시키려함에 따라 ‘주변부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의 정치 구조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홍콩은 법적으로 극우부터 극좌까지, 넓은 범위의 정당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60년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지배 정당으로 남아있다. 이공대학교



포위사태에서 갓 풀려난 이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이러한 범민주 진영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2019년 11월 24일 홍콩구의회 선거에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으로써 의견을 명백히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권력’의 원천이다. 선출된 의원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대중이 손을 맞잡고 장기적으로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다.

다른 많은 곳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조합은 홍콩의 진보적인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잠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교수와 교직원으로 이루어진 홍콩이공대학교직원조합(PUSA)이 좋은 예다. 직원 조합은 위기의 시기에 들고 일어나 학생과 교사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을 규탄했다. 또한 홍콩과 베이징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업을 거부한 조합원과 학생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학생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보호책이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남아있다. 홍콩중문대학교와 이공대학교를 포함한 홍콩의 대학교들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비극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흉터로 남을 것이다. 불의가 남긴 상처는 캠퍼스에 남은 최루탄과 화염병, 그밖의 무기들을 치우는 것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

2020년,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일부 학생들은 직접 조합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좌파 대학 조합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한편 일부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대 경제’의 개념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성장과 번영’이라는 홍콩의 신화를 찬양하는 대신 매일의 삶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평등, 상호 지원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 표면적인 성공 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세계적 도시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품위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거나 전무하다.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각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 살아 생전에 민주화된 중국을 그려볼 수 있을까? 학문 교류와 국제적인 교육 협력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민감한’ 키워드를 필터링하고 차단하는 정부의 검열은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에 제한된 역할을 할 뿐이다. 중국 본토의 셀 수 없는 시민들은 여러 앱을 통해 방화벽의 관리장성을 기어올라, 홍콩과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투쟁을 목도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 개인과 단체들과 함께 서서 연대할 것이다. ▼